

## 제주민요 창자 중심의 보전 방안\*

좌혜경\*\*

### 〈목 차〉

- I. 서언
- II. 시대별 창자 유형
- III. 제주민요 보전 방안
- IV. 제언

### 〈국문요약〉

제주도민의 정신적 가치가 담긴 '제주민요' 무형문화유산은 제주민의 삶의 일부이며 공동체 문화 복원과 제주의 정체성 구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대 변화로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

제주민요는 제주민의 생업이라 할 수 있는 농·어업 등의 노동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노동으로 생계를 이끌어갔지만, 특히 여성들은 삶을 위한 생활의 문화로서 민요를 삶의 일부로 삼았다.

창자(唱者)는 노래 기능과 관련하여 전승되는 고정구에 개인적 정서를 표현하고 더구나 노동·의례·유희의 기능과 관련하면서도 음악성, 문서 엮음 등 개인적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

제주민요와 관련하여 국가와 도 지정으로 정해진 종목인 경우 대부분이 여성창자들이 부른 민요이다. 이를 중심으로 타 종목도 포함하여 종목 통합으로 전승범위를 확대하고, 유형 계열별 복수 종목을 통합하여 무형유산 체제로 그 지정 범주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가창능력이 뛰어난 지역주민 유무에 따라 마을 단위별 소리판을 재구성 할 필요가 있는데, 연희판과 소리판의 형성은 마을 민속연희와 공유되면서 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 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이다.

\* 이 글은 2012년 제주에서 개최된 제10회 동양음악학국제학술회의(9.20~9.22),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무속과 민요』에서 발표했던 것을 수정·보완하였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마을별로 지역성이 강한 연희를 개발하여 마을축제나 탐라문화제 등에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면서 민요 전승에 세대 간 연결이 되도록 한다.

민요 무형문화재의 후세 전승을 위해서 전수교육을 강화하고 전수장학생 확보 및 전승기반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민요의 전승보존을 위한 전수 교육관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제도권의 대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가칭)민속예능교육원’과 같은 평생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정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

핵심어: 제주민요, 여성창자, 여성민요, 마을축제,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관, 평생교육기관

## I. 서언

제주의 전통문화로서 제주민요는 제주민의 생업이라 할 수 있는 농·어업 등의 노동과 함께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생업 속에서 제주민요를 향유했지만 특히 여성들은 민요를 삶의 일부로 생활 문화로서 향유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민요 기능(function)은 흔히 알고 있는 바처럼 노동, 의식, 유희의 진행에서 박자를 맞추고 흥을 더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완수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의례적 성격을 반영하는 특수성을 띤 민요인 의식요 중 무속의식요는 의례의 진행 중에서 신과 인간이 동참하여 신인합일의 경지로 화하는 효용이 있고 장례의식요는 행상과 흥을 파는 일, 달구 등 장례의례를 위한 기능을 반영했다.

또한 여성들에 의해 노래의 감흥을 표현한 가창유희요인 창민요는 특수 계층인 관아의 기생들에 의해 전해진 민요로 제주시 목관아 지역과 또한 정의현의 현청소재지였던 표선면 성읍리 등지에서 불리고 있다.

1970년대 농업의 기계화는 전근대적인 삶과 밀착되어 생겨난 민요 창자들을 노래 구연 현장 밖으로 몰아내었고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집단적으로 구연되던 현장의 양상을 바꿔놓았다.

그렇지만 민요는 생활상의 쓰임의 가치에 따라 향유되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문화로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제주라는 지역과 지역민의 역사

와 생활사로서 제주의 독특한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어서 전승보존 가치가 충분한 무형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민요의 지속적 전승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비관적 현실로 볼 수 있으며, 살아 있는 현장을 떠난 보유자와 예술단에 의해 분리면서 가사의 고정화·박제화 된 전승으로 구연이 가능한 창자나 향유자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국가 혹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생들의 시연(試演)공연과 예술단의 무대공연이 전부인 현 실정에서 살아있는 보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 극복과 민요의 전승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거의 민요 현장을 역사적으로 살피고, 자연스런 세대 간 전승이 어려운 인위적 전승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맥을 잇고 보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제주도민들의 삶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제주민요의 시대 변화에 따른 창자 유형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그간의 제주민요의 보전 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시대별 창자 유형<sup>1)</sup>

노래와 창자는 불가분의 관계다. 창자는 노래 기능과 관련하여 전승되는 고정구에 개인적 정서를 표현하여 새로운 창조적 전승에 참여하게 된다. 더구나 노동·의례·유희의 기능과 직접 관련하여 표출하면서도 음악성, 문서 엮음 등 개인적 능력이 존중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제주민요에 관한 수집과 연구는 1930년대를 시작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집된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창자 유형의 추출은 전승·보전 활용을 위한 실마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여기서 창자 유형이라 함은 성별 구분에 의한 남성과 여성 또는 노동, 의례, 유희 기능에 따라 노래하는 자연스런 구연의 경우와 보유자처럼 전수활동을 하는 보존회의 일원 혹은 민속보존회 활동에 참여하는 창자 등 다양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제주민요의 일반화된 특성 중 여성창자의 우세는 바로 노래의 노동, 유희, 의식 기능이 여성 중심적인 역할 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별 전개양상에 따른 관련 자료들을 여성 창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렇다.

## 1. 1930~1950년대

1930년에서 50년대는 주로 일제 강점기에 해당한다. 이 기간의 민요 창자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집 정리된 민요자료집에서 다소나마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1932년 최초로 제주민요를 집중적으로 수집한 일본인 다카하시(高橋亨)는 제주민요 창자와 관련하여 ‘제주여성’을 언급하고 있다.<sup>2)</sup>

그는 여성들이 부른 노래를 ‘여성요’라고 칭하고 해녀들이 노를 저으면서 부르던 노래를 <선가(船歌)>라고 하고 있으며, 갯의 태두리인 양태를 짜면서 부르던 <양태가>, 말총으로 갯 안에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쓰는 망건을 짜면서 부르는 <망건가> 그리고 해녀들이 부르는 <해녀가>, 여성노동요의 백미라고 보고 있는 땃들을 돌리거나 방아를 찧으면서 부르던 <땃돌·방아노래> 노래 속에 나타난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집살이 노래에는 ‘식구들과의 갈등’, ‘첩을 소재로 한 노래’, ‘양반지향’, ‘경성(京城)지향’, ‘님에 대한 사랑’ 등 주제중심으로 분류하고, 밝고 어두운 노래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제주여성들이 부른 대표적인 노래로 <땃돌·방아노래>, <해녀노래>, <동요>를 들고 있음이 이채롭다.

한용주가 모집하고 김영삼(金永三)이 편한 『濟州民謠集』에서는 노동 중심의 기능적 분류를 행하고 있으며, 비기능적 노래 분류로서 <시집살이>, <첩요>, <팔자>, <과부노래>를 설정 여성 노래들을 중시하여 정리하고 있다.<sup>3)</sup>

진성기(秦聖麒)의 『濟州道民謠』 1, 2집에서는 제주여성들이 땃돌(일명 제주 방언으로 그레라고 함)을 돌리면서 부르는 <땃돌노래>를 중시하여 묶고 있

2) 高橋亨, 『민요에 나타난 제주의 여자』, 『朝鮮』 통권 202호, 12월호(朝鮮總督府, 1932).

3) 金永三 編, 한용주 募集, 『濟州 民謠集』(중앙문화사, 1958).

다. 그 정서를 내용별로 <과부노래>, <시집살이노래>, <원정노래>, <팔자노래>, <첩노래> 등으로 분류하고, 제3집에서는 <해녀노래>, <과부노래>, <팔자노래>, <시집살이노래>로 정리하고 있다.

편자의 자료에서는 대부분 여성들이 민요창자로서 주역을 담당하고 있고, 수집도 여성 민요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자는 노래에 나타난 제주여성의 근면하고 자주적인 점을 강조하고 노래의 공리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2. 1960년대

이 시기 간행된 자료집 중 김영돈(金榮敦)의 『濟州島民謠研究(上)』에서 수집 의도 등을 참고하면 창자 유형 파악이 가능하다. 그는 민요 원형을 중시하여 여성 고령자를 택해서 수집하고 있으며 각 편마다 제보자의 주소, 연령, 성별, 기록 등을 하고 있다.<sup>4)</sup>

이 기간의 연구 중에서 진성기는 “해녀노래에 나타난 여인상”을 다루고 있으며,<sup>5)</sup> 김영돈은 “제주도민요에서 본 여성들이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sup>6)</sup>

또 임헌도는 제주 여성들의 탄식요를 고찰하고 있다.<sup>7)</sup> 시집살이 등의 여성들 삶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탄식에 대한 제재를 다룬 것으로 특히 멧돌방아노래에서는 여성들의 섬세한 정서 표현에 대한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운영(羅運榮)은 제주도 민요의 음악적인 특징을 고찰하기 위하여 세 차례(1966, 1967, 1970년) 세 차례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서 <해녀노래>, <멀치후리는노래>, <김매는노래>, <타작노래>, <밭밟는노래>, <방아노래>, <멧돌노래>,

4) 金榮敦, 『濟州島 民謠研究 (上)』(일조각, 1965).

5) 진성기, 『제주민요에 보이는 여인상: 특히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제대학보』 3(제주대, 1960).

6) 김영돈, 『제주도민요에서 본 어머니의 사랑』, 『제주도』 제2호(제주도청, 1962).

7) 임헌도, 『제주도 여성의 탄식요 고찰』 (1) (2), 『제주도』 22-23(제주도청, ♣연도).

<망건노래>, <자장가>, <행상노래>, <달구노래>, <고기낚는노래> 등을 녹음 채록하고 민요에 나타난 작곡학적 분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기간의 연구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지극히 자연스런 구연에서 여성 창자들의 우세는 당연했다.

### 3. 1970년대

1970년대는 노동과 의례 현장에서 불리는 노동요, 의식요가 구연되는 노래 판이 살아있는 마지막 시기이면서도 기계화와 산업화로 노래가 삶의 현장에서 점차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노동 작업과 노래 구연의 실태를 설정해 보면 1) 작업과 민요가 모두 현존하는 경우다. 곧 민요가 노동 기능과 함께 현장에서 불리고 있다 2) 작업과 민요가 분리된 것으로 인위적인 상황설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연이다. 3) 작업은 사라지고 민요만 남겨진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의 기능성이 소멸되고 분리되더라도 노래를 기억하는 창자가 대부분인데, 그들은 현장에서 부르던 노래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한편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지정되면서 민요의 구연정도와 중요성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기에 이른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해녀노래’를 꼽을 수 있다. 이 노래는 노를 저어 작업하는 돛배(풍선)가 사라지고 발동선으로 바뀐에 따라 노동기능의 소멸로 인한 전승이 단절되어 1971년 8월 26일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곧 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은 전승기반을 굳히고 전승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적인 능력 함양과 교육을 통한 전수가 그 목적이었다.

#### 4. 1980~1990년대

이 시기는 현장론적 조사의 특성은 방법에 따라 수집지역과 창자의 연령 및 성별이 표기된 자료집을 일람할 수 있고, 시·군, 읍·면에 따라 동·리 제보자 중심으로 노래의 명칭과 창자 유형을 쉽게 살필 수 있다.

대표적 자료로서 『한국구비문학대계』(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1983)와 『한국의민속음악: 제주도민요편』(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민요대전 - 제주도민요해설집』(제주문화방송, 1992) 김영돈편저, 『제주의 민요』(제주: 신이문화사, 1993) 등이다.

이 시기 자료집에 나타난 창자들을 시·군·읍·면의 지역구분과 남녀 표기가 되고 있다. 이를 구분해 보면 단연 여성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가창 능력이 있는 창자들의 수가 꽤 많이 존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1980~1990년대 자료집에 실린 지역별 자료 수

| 지역 | 제주시 | 서귀포시 | 조천 | 구좌 | 한경 | 한림 | 애월 | 성산 | 표선 | 안덕 | 대정 | 남원 |
|----|-----|------|----|----|----|----|----|----|----|----|----|----|
| 남  | 4   | 6    | 7  | 10 | 5  | 10 | 19 | 7  | 4  | 6  | 5  | 2  |
| 여  | 21  | 21   | 17 | 11 | 18 | 14 | 45 | 6  | 9  | 8  | 13 | 4  |
| 계  | 25  | 27   | 24 | 21 | 23 | 24 | 64 | 13 | 13 | 14 | 18 | 6  |

또 일반 창자 유형은 전통 사회에서 구연에 참여하여 기억된 창자들과 국가 지정이나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서 습득된 창자들로 구분된다.

이 시기는 민요의 구연 기회가 거의 사라지고 전승기반이 남아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조성이 없다면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자 지정(1989)도 이루어졌다. 표선면 성읍리에서 전해지던 민요 중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맷돌노래가 주 종목이고 그 마을 출신 조을선과 이선옥이 보유자와 조교로 각각 지정되었다.

또 안덕면 덕수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방앗돌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이 방앗돌을 끌고 오면서 불렀던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9호 ‘방앗돌 굴리는 노래’와 구좌읍 김녕리에서 멀치그물을 후리면서 불렀던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멀치그물 후리는 노래’가 지정 되었는데, 전승현장과 노래의 단절로 지속이 어려운 시기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2000년대

2000년대 이후 제주민요 창자들은 두 가지 특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보유자들 전수교육 이후의 결과는 공연과 시연을 통한 무대공연이 대부분이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 가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단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전통 민요의 무대 위 공연과 기층 민요계층 간의 단절 속에서 실제 노동 현장에서의 구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통 민요 기반인 노래 기능과 관련된 노동요와 의식요 역시 무대 위 공연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위해 좁씨를 뿌리고 씨앗의 발아를 위해 우마와 사람이 함께 밭을 밟으며 부르던 ‘밭밟는 소리’와 김을 맬 때 부르던 ‘사대소리’, ‘타작소리’ 등 일련의 노동요를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로 지정했다. 노동요를 부를 수 있는 농사짓기 행위와 관련된 농요 보유단체는 실제 구연 현장성 재연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수관에서 일반인 혹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교육과 무대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진사대 소리’는 애월읍 중산간 지대의 토지가 비옥하고 너른 농토에서 김을 맬 때 늘려서 유장하게 부르는 민요였으나 제초제의 사용으로 김매는 작업이 사라지게 되어 노래 부를 기회가 없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 된 이후는 무대공연을 주로 한다.

생태 농업의 일환인 거름과 씨앗을 섞어서 농사를 하던 ‘귀리(하귀2리) 걸보리 농사일소리’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고 하귀 2리 민속 보존회가 보존 전승을 맡고 있다. 또한 ‘제주시 창민요’가 성읍 창민요와는 음색과 창법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성은 사설 예술단의 등장이다. 도내에 소재한 민요와 민속춤으로 제주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예술단은 18개 단체에 이를 정도로 많이 생겨났고, 대부분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화재 전수 활동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현재 도지정 전수조교 혹은 전수장학생 등으로 지정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자생적으로 생겨나 활동하는 예술단체들이다. 단체의 예를 들면 들하르방, 동북예술단, 박경선소리마당, 사라예술단, 서우제예술단, 선돌예술단, 송죽예술단, 어울림예술단, 올레예술단, 이어도예술단, 제주민요연구소, 칠십리예술단, 탐라예술단, 한누리예술단, 한라예술단, 한얼메아리예술원, 해송무용단, 해오름예술단 등을 들 수 있다.<sup>8)</sup>

예술단들은 문화재 지정 민요의 전승을 위해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전승지원금을 받아 전수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과 같은 도 문화재진흥기금 등을 이용, 일 년에 한두 번 치르는 시연을 하거나 양노원이나 노인당과 같은 곳에서 위로 공연을 하고 마을행사나 학술대회, 각종 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에서도 참가하는 등, 실제의 민속 예술단의 민요 보전을 위한 역할은 크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바대로 제주민요의 전승 주역은 여성들이며 예술단의 활동도 대부분 여성들이다. 민요관련 무형문화재 지정 실태조사 <표2>에서 보면 창자들 역시 여성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여성 창자는 문화재 전수 활동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8) 활동이나 창단에 관계없이 가나다 순으로 정리함.

### Ⅲ. 제주민요 보전 방안

#### 1. 무형문화재 제도의 보완책

현행 무형문화재법 상의 무형문화재 지정, 보존 전승의 제도적 한계는 구연 현장의 소멸과 창조적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곧 무형문화재가 최종 생산물로서 고정되지 않고 실현되는 가변적 실체이면서 일정한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사회적 유대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속가능’의 전승 보전 기반 강화를 위한 『(가칭)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무형문화유산 보전의 글로벌화로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시책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 등을 하고 있다.<sup>9)</sup>

법률제정의 기본 방향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 규정을 분리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전 원칙을 재정립하고 있는데,<sup>10)</sup> 보호협약에서 보전(safeguarding) “특히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확인하고 문서화, 연구, 보존, 보호, 증진, 전수 등과 관련한 구원 조치를 의미한다(제2조 제3항)” 는 정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이다.

9) 문화재청, 『(가칭)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연구』(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10) 위의 책, 관련 사업의 기본방향은 무형문화재 용어 변경 및 범주 확대, ‘원형 보전의 원칙’ 수정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보전 방향 설정, 보유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지정제도 추가 도입, 지식 재산권 보호 및 활용 방안 강구, 대학교육과 연계한 무형문화유산 전승방안 강구(도제식 전수 → 제도권 교육편입) 등이다.

(표 2) 민요 관련 국가, 도 무형문화재 실태

| 종목               | 가창자<br>(남, 여) | 지정 범위<br>(국가, 도) | 지정 번호        | 지정 연도 | 기타       |
|------------------|---------------|------------------|--------------|-------|----------|
| 제주민요             | 여             | 국가지정             |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 1989  | 표선면 성읍리  |
| 해녀노래             | 여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 무형문화재 제1호    | 1971  | 구좌읍 행원리  |
| 방앗돌굴리는 노래        | 남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 무형문화재 제9호    | 1986  | 안덕면 덕수리  |
| 멀치후리는 노래         | 여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 무형문화재 제10호   | 1986  | 구좌읍김녕리   |
| 제주농요             | 여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 무형문화재 제16호   | 2002  | 조천읍 함덕리  |
| 진사대소리            | 여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 무형문화재 제17호   | 2005  | 애월읍 남읍리  |
| 귀리 곶보리<br>농사일 소리 | 여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 무형문화재 제18호   | 2007  | 애월읍 하귀2리 |
| 제주시 창민요          | 여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 무형문화재 제20호   | 2009  | 제주시      |

제주민요 전반에 대한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의 보완책으로 국가와 도 지정으로 정해진 종목인 경우 종목 통합으로 전승범위를 확대하고 유형 계열별 복수 종목을 통합하여 복수보유자 선정 방안을 모색 후 무형유산체제로 그 지정 범주를 확대할 수 있다.

전수 교육도 현행의 단순한 도제식 무형문화재 전수인 전수장학생, 전수생 대상만이 아니라 학생, 주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승범위를 확대하여 전 도민이 참여하는 전수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지정된 종목 이외의 타 종목을 포함시키고 지정 보유자 이외에 가창기능이 뛰어난 지역별·기능별 유능한 가창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단체 종목인 경우는 문화재 지정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보유단체를 법인화하고 현실적인 전승교육비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며<sup>11)</sup> 도지정 단체종목인 경우도 보유자 지정과 전수조교들의 전수교육 활동을 위한 보유자 개별 전수교육비 지원으로 현실적인 전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1) 문화재청, 앞의 책, 73~76쪽.

곧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주민요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전승보전 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sup>12)</sup>

## 2. 현존 민요 창자 파악과 활용

제주지역에 남아 전해지는 제주민요의 실상을 파악하고 현존 민요 창자들을 활용하여 전승 보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불리는 민요는 과거의 민속이라기보다는 예능이라는 점에서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재현하고 도민의 삶과 단절되는 등 생활과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sup>13)</sup>

과거에는 지역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 유희, 연희 관련 가창능력이 뛰어난 창자의 소재에 따라 각 마을마다 연희판과 소리판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연희판, 소리판의 재구성은 한때 마을 민속 축제나 연희와 공유하면서 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공동체 문화를 지속하는데 한 몫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마을의 민속연희를 이용한 지역 공동체 중심의 민요 전승방안으로 제주 전역에 남아있는 민요와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은 탐라문화제의 연희 형태를 통해서 재현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탐라문화제 출연을 위한 연희의 바탕이 되는 민요는 지역의 특성과 가창능력이 뛰어난 창자 유무에 따라 마을 단위별로 소리판이 재구성되었다고 본다.

현재 남아있는 지역성이 있는 연희를 개발하여 마을축제나 탐라문화제 등에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면서 민요 전승에 세대간 연결이 되도록 한다.

마을별 민속자원이 될 수 있는 민속연희를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관련 중심이 되는 민요들을 예로들면 ‘해녀놀이’의 해녀노래, ‘테우(제주의 전통배)만드는 놀이’의 낭 끈치는 소리(나무 자르는 노래), 낭 내리는 소리(나무내리는 노래), 대툽질 소리, 귀자귀질 소리(나무껍질을 벗기는 도구), ‘멀치후리는 놀이’의 멀치후리는 노래나 ‘화전놀이’의 창민요, ‘방앗돌굴리는 연희’의 방앗돌굴

12) 줄고, 『제주도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 및 진흥방안』(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센터, 2012), 42쪽.

13) 사꾸라이데스오, 『제주도 민속 음악의 현대적 변용』, 『민요론집』 제5호(민요학회, 1997), 491쪽.

리는 노래, ‘사또놀이’의 상여소리, 꽃염불소리, 달구소리, 장례의식요, 영부소리, 또 ‘초가집짓기놀이’로는 집터다지는 소리, 흙이기는 소리, 흙바르는 소리, 성주풀이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마을 민속이 잘 남아있는 안덕면 덕수리, 표선면 성읍리 등 마을 무형 자산이 풍부한 지역은 마을민속보존회 중심의 마을별 무형문화유산으로 전승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예능인이 아닌 주민 참여로 전승문화를 보존해 나가도록 지역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민요의 보존이 아닌 그 외의 무형유산들도 통합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성읍 마을의 민요 이외에 오메기·고소리술, 세시풍속, 포제, 민속마을 사람들의 남긴 무형의 전통적 자산 등을 포함한 ‘성읍리 마을 무형문화유산’으로의 보존과, 안덕면 덕수리의 불미공예나 방앗돌굴리는 노래, 집줄놓는 소리 등을 한데 묶어서 ‘덕수리 무형문화유산’ 등으로의 전승보존 마련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 3. 전수관 활성화와 ‘(가칭)민속예능교육원’ 설치 운영

민요 무형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후세 전승을 위해서 전수교육을 강화하고, 전수 장학생 확보 및 전승기반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민요의 전승보존을 위한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제주불교의례 전수회관, 안덕면 덕수리 민속보존회 전시공연장, 애월읍 하귀2리 귀리 길보리 농사일소리 전수교육관 등이 마련되고 있고 표선면 성읍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읍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이 지역에서 맥이 이어지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민요, 고소리술, 오메기술, 초가장 등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전시관의 기능은 공연, 전시, 교육 등의 측면을 지니면서도 진흥을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곧 국가중요무형문화재와 도지정무형문화재의 전

승보존을 위한 기능 전수교육 및 공예품 전시 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수교육관의 프로그램 활성화와 무형문화유산 전수자, 공연과 기획을 위한 전문 인력, 전수교육자 등의 인적자원 확보와 양성 등을 위해 제도권 내의 대학교육에 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칭 ‘민속예능교육원’과 같은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제주 민요에 대한 관계전문가나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전수교육 체계 마련 등 제도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연이나 기획 전문가 육성, 민요전문가와 전통 문화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행한다. 도제식 전수 한계에서 벗어나 이론적이고 기·예능적 연구와 학습을 위한 전수생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이루어지는 전수교육 제도 라 할 수 있다.<sup>14)</sup> 또 연습장과 공연장 활용을 통한 무형문화재별 네트워크 구축도 이루어져야 한다.

곧 문화재청과 대학 그리고 제주도청이 출연하는 예산 운영으로 놀이나 민요 등 살아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보유자 및 전수조교(교육사)에 의한 전수교육, 국제교류 등을 통한 제주무형유산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도록 하여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수준 높은 제주민요 공연으로 감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무형유산 콘텐츠화로 관광자원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 IV. 제언

제주도민의 정신적 가치가 담긴 ‘제주민요’ 무형문화유산은 제주민의 삶의 일부이며 공동체 문화 복원과 제주의 정체성 구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대 변화로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

14) 문화재청, 앞의 책, 179쪽. 제 31조, 대학에서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은 교육과정, 교수요원, 교육시설 등 이수자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대학을 전수교육 대학으로 선정하고 우수한 전수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있다.

일반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글로벌화는 자국의 책임이 아닌 전 지구적인 보전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승보전의 정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민요 관련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과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에 발맞춰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제주형의 무형문화유산 보존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지정,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를 국가지정무형문화유산, 도지정 무형문화유산으로의 확대 재편하고 제주만의 역사성과 공동체성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高橋亨, 『민요에 나타난 제주의 여자』, 『朝鮮』 통권 202호, 12월호, 朝鮮總督府, 1932.  
 金榮敦, 『濟州島 民謠研究 (上)』, 일조각, 1965.  
 金永三 編, 한용주 募集, 『濟州民謠集』, 중앙문화사, 1958.  
 국립문화재연구소·동경문화재연구소, 『한·일무형문화연구 I』, 2011.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연구』, 인하 대학교, 2011.  
 박동석역음, 정문교 감수, 『문화재보호법』, 민속원, 2005.  
 사쿠라이데스오, 『제주도 민속 음악의 현대적 변용』, 『민요론집』 제5호, 민요학회, 1997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2003.  
 임재해, 『무형문화재의 가치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 45, 한국민속학회, 2007.  
 좌혜경, 『제주도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 및 진흥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센터, 2012.  
 제주도, 『제주도무형문화재지정보고서』, 문화정책과, 2003.  
 제주특별자치도, 『2012 문화·관광·스포츠 현황』, 2012.  
 \_\_\_\_\_,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문화정책과, 2008.  
 \_\_\_\_\_, 『문화재 보호조례』, 문화정책과, 2008.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광문당, 2009.

## Preservation Measures Focusing on Jeju Folk Song Singers

Choa, Hye-kyung\*

The 'Jeju Folk Song' intangible cultural assets which possess the mental spirit of the Jeju people is an integral part in the fabric of the Jeju people's lives. It occupies a very important position and is recognized as having the prestige in realizing Jeju's authentic identity and culture restoration but is now facing extinction in the changing of the times.

Most of the Jeju folk songs have been created naturally along with daily labors related to agricultural and fishing activities which were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Whether it be men or women, it is true that they both maintained their lives by attending to the labor intensive work but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women, they found comfort and solace in making these folk songs part of their labor work as an aspect of cultural enjoyment.

The singer expressed personal sentiments in the fixed phrases which had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related to the actual function of singing. In addition to that, while the phrases were connected to labor, ceremonial rites and festivities, it still managed to demonstrate personal ability through musical talent and literature.

Most of the items that have been officially designated by state and Jeju provincial government are women folk songs that have been sung by female singers and for other female related items, a separate measure should be sought

---

\* Research Center for Jeju Studies, Jeju Development Institute



out. The Jeju folk song needs to be rearranged in terms of each distinctive note and sound according to whether there are residents who can sing with talent with that region and special characteristics in mind. The formation of these festive fields and sound fields should be commonly shared with traditional folk festivals so that the identity of each village can be regained and ultimately have an important role and function in restoring the communal culture.

By developing distinctive festivities of each village region, the younger generation should be exposed to the village festivals and Tamra culture festivals so that they may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s.

To ensure the passing of the folk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the preservation of its pristine condition,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education system. As part of the plan to establish the foundation and securement of students of such schools, the training facilities need to be activated exclusivel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tradition of all folk songs. In addition to that, for the maintaining of a systematic training program, we would need to set up an educational institute so that regular programs can be administered for the raising of professionals who would carry on such traditions.

Key words : 'Jeju Folk Song', Jeju's authentic identity, Female singers, women folk songs, traditional folk festivals, intangible cultural assets, systematic training program

〈이 논문은 ♣월 ♣일 투고되어 ♣월 ♣일~♣월 ♣일까지 심사기간을 거쳐  
♣월 ♣일 게재 확정되었음〉